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심판 주일 (금육 주일)

성 프로코피오스 증거자

(제3조 ♦ 조과 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 81
- 수도자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금육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1고린토 8,8~9,2 ---- 봉독서 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와 스승들, 모든 선조들과 형제들, 이곳과 모든 곳에서 평안히 잠드신 모든 정교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성의 샘터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은 무엇을 척도로 삼아 심판하실까? 최후의 심판 비유(마태오 25,31~46)는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추상적 정의에 기초한 단순한 인도주의적 관심도, 익명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도 아니다. 그것은 인격, 즉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인격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인격적 사랑'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느님 나라의 한 작은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부하였는가? 이것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40)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대사순절'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희망, 영혼의 산소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꿈을 가지며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꿈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여정에는 희망이 꼭 필요합니다. 산소가 폐에 필수적이듯, 희망은 인간 존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질식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영적 질식이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형태의 우울증이 생기며, 또 모든 형태의 자살도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에 둘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삶에서 많은 투쟁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승리해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초월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행히도 우리는, 비인간적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혹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을 만한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성취에 눈먼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우리 정신과 영혼과 우리 삶에 방해가 되니, 우리 앞에서 떠나소서. 우리 입술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했나요? 한편으로는 발전, 진보, 과학, 높은 수준의 기술에 도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 유혈사태, 범죄, 테러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직 오지 않기라도 한 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왔는데, 이는 인간이 스스로가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생각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지탱하는 '믿음'과, 믿음에 담긴 '희망'에 의식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완성시키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와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마주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그 어려움을 마주하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적은 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나요?

아타나시아 봉사자

우리는 하느님께서 종종 침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판단은 바닷속 심연(深淵)과 같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1고린토 2,16)라고 묻습니다. 하느님의 판단과 뜻, 그리고 그분의 침묵을 해석하기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흔히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십니다. 하느님은 시련과 질병,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음을 아주 잘 아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로 자신도 고통스런 질병으로 고생했으나 하느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느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고린토 12,9)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포르피리오스 성인(+1991년 안식)과 파이시오스 성인(+1994년 안식)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하느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대신에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이 성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파이시오스 성인은 흔히,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수련을 하면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저는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를 치유해주시거나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라,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마태오 7,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와 기꺼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 속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승낙이 없으면, 하느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문을 두드리시지만, 침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줌(zoom) 단체 모임	
매 주일 오후 2시	신데즈모스, 예비 신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소 식

참회의 만과

대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3월 6일)에는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대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례합시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은 육류를 금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육류는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참회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회개와 정결(淨潔)은 고백성사로 완결됩니다. 고백성사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성인의 가르침

성 파코미오스
수도 사제

깨끗이 씻읍시다!

고백할 때는 간결하게, 겸손하게, 분명하게, 사실대로, 자발적으로, 죄책감으로, 경견하게 할 것이며 또 요행히 모면한 죄를 다행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털어놓을 것이며, 고백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

부끄러워할 것 없이 용기를 내어 눈물이 나도록 자신을 책망하고 내적 정화를 기하라.

그리고 미루지 말라. 미루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멸망하게 된다.

표지 사진 설명

베싸이다 -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래아 호수 북쪽 지역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코라진, 베싸이다, 가파르나움 등이 있다. 어촌이었던 베싸이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의 아람어에서 유래하였고, 요르단강 상류가 흘러드는 갈릴래아 호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아, 필립보의 고향이다.(요한 1,44) 예수님은 베싸이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눈먼 이를 고쳐주셨고(마르코 8,22~26),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다.(루가 9,10~17) 이처럼 갈릴래아의 여러 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에 코라진, 베싸이다, 가파르나움을 꾸짖기도 하셨다.(마태오 11,20~24)
[사진은 베싸이다 전경. 멀리 산 넘어 갈릴래아 호수가 보인다.]